'익산다이로움 특별 이벤트'

설문참여자 3000명 1만원 포인트·신규발급자 2000명 5천원 포인트 지급

익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골목상권 활성화와 착한소비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익산다이로움 특별이벤트를 개최한다.

시는 익산다이로움 금융 협력사(농협, 하나카드)와 함께 '다이로움 설문참여 이벤트', '다이로움 신규카드 발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이로움 설문참여 이벤트'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익산다이로움 가맹점(행사 제외업종은 이벤트 참여대상에서 제외됨)에서 2만원 이상 결제를 하고, 시 홈페이지(익산소식) 또는 익산다이로움 앱 등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3천명을 선정해 다이로움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역외소비지출 비중이 낮은 병원·약국, 주유소, 학원·교육, 부동산,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업종이나 2분기 소비촉진지원금 제외업체에서 사용된 결제금액은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다이로움 신규카드 발급 이벤트'는 이달 중 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시민을 대상으로 2천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다이로움 포인트 5천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카드발급 후 1회 이상 사용하면 별도 참여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지원금은 다이로움 포인트로 다음 달 2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격월 시행하는 골목상권 이벤트가 착한소비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익산다이로움 이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올 상반기까지 매월 20%로 월 최대 20만원 혜택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배산공원이 경관 조명 설치로 도심권 대표 야간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해 눈길을 끈다.

자연과 어우러진 '빛의 향연'

익산 배산공원 새단장, 경관 조명 설치… 도심권 야간 휴식공간

익산시 배산공원이 경관 조명 설치로 도심권 대표 야간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해 눈길을 끈다.

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산의 산림자원과 어우러지는 야간 경관 조명 연출을 통해 주진입로부터 주차장까지 어두운 밤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입구부터 펼쳐지는 소나무 군락지와 조화를 이루는 간접조명을 설치해 어둡던 공간을 밝고 따뜻하게 연출했다.

또한 기존에 50m마다 설치돼있던 노후 보안등을 25m마다 설치해 밝고 쾌적한 밤 공간을 마련했으며 운동기구로 이어지는 나무숲 터널에 레이저 조명을 연출해 마치 반짝이는 반딧불 세상에 온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배산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했으며, 야간 조명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포함 현재 맞이공간(0.5km)과 내부 산책로(2.0km) 정비를 완료했다.

낡고 색이 바랜 정상 연주정과 배산정 단청 보수와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둘레길(1.0km) 정비를 상반기 안에 완료해 전 시민이 찾는 명품 배산공원 산책로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배산공원에 새로운 빛을 입은 산책로가 조성돼 소나무숲과 계절꽃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과 함께 애들아 놀자'!

홀로그램 체험관 새단장

익산시 홀로그램 체험관이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체험관에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 '홀로그램과 함께 애들아 놀자!'에 약 2천명이 방문하며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익산역 동문주차장 옆 홀로그램 체험관에서 각종 홀로그램 장비 전시를 통한 홀로그램 체험, 즐링(춤추며 놀아요), OX퀴즈, 마룡 타투 스티커 붙이기, 머그컵 프린팅과 같은 놀이 체험과 포토이벤트(SNS인증)를 통한 선물 증정, 한정굿즈(마룡 캐릭터 미아방지 목걸이) 판매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어린이들이 센서가 부착된 밴드를 손목에 차고 영상을 보고 춤을 추는 IOT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여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익산시 홀로그램 체험관이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체험관은 10시부터 18시까지 상시 운영(매주 월 휴무)하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보드게임 화학물질안전교육 '눈길'

군산시가 초등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화학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학 사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게임으로 구현한 화학 안전 보드게임 '마법사의 탑'을 관내 초등학교 13곳에 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보드게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공됐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마법사의 탑'은 초등교육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주사위와 카드를 사용, 게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법사의 탑'은 어린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화학안전 상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잘못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마법사들로부터 시민을 구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학교, 산업단지 인근 이·통반장 회의, 기업체의 집합교육을 통하여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및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 신고 실시

군산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자 신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5일동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0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또,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달 10일 이전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고, 11일 이후 신고자는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오는 27일과 28일에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자가격리 지침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종합·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문민원을 이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60세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접수

군산시는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22년 5월 9일) 이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다수 보유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8일(예산 소진시)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소상공인지원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만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